

SEIU Healthcare 1199NW 2020년
7월 2일 집행위에서 채택

COVID-19 대유행 및 그 이후의 API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비난하는 결의안

미국의 2 백만 명 이상의 아시아 태평양 섬주민(API)이 의료, 운송 및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COVID-19 대유행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API 근로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없이 일하고 인종 차별, 편견 및 외국인 혐오증에 시달리면서 전세계 대유행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선출 의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된 공개 성명에서 미사여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섬주민들의 역사적 차별을 계속하고 있으며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층의 이민자와 유색 공동체는 공중 보건 위기 또는 전쟁 중에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근로자, 인종 또는 이민 상태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스크, 검사, 인공 호흡기, 병상이 필요하며 최전선 근로자는 고용주 규모나 업종에 관계 없이 작업장 안전 보호, 위험 수당, 유급 병가,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민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인구가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FFCRA, 가족우선코로나대응법)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업 구제 금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비난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API 노동자의

기여를 높이고, COVID-19 대유행 이후에 동맹국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코커스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SEIU는 인종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비난하기로 결의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SEIU는 이 대유행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에서 API 회원의 영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 조명하고 고양시킬 것입니다.
2. SEIU는 아시아인 혐오 공격 사건과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현 행정부, 선출 의원, 그리고 모든 후보자 및 그 지지자에게 인종 차별적 미사여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3. SEIU는 노조 지도부, 후보, 선출자 및 동맹과 협력하여 대유행 기간과 그 이후에 우리 공동체에서 아시아인 혐오 공격을 비난할 수 있는 모든 화두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4. SEIU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 할 것입니다.
5. 코커스는 SEIU와 협력함으로써 SEIU의 API 회원 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적하여 API 공동체에 대해 증가하는 공격에 대처하는 조치를 추가로 알리는 것을 포괄하는 노조 차원의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조치: SEIU Healthcare 1199NW 집행위 채택 날짜: 2020년 7월 2일

목요일